



##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한 ESCO의 대응자세



전 세계적으로 新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, 에너지시장은 더욱 급변하고 있다. 새로운 고효율 에너지 기기 및 기술의 개발, 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확보,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기고 있고, 발 빠른 국가에서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.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과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,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역내 또는 글로벌 시장에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.

이러한 추세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된 것이다. 에너지시장의 변화는 화석연료의 가체연수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대변되는 환경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, 에너지경제학자 및 전문가 그룹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던 화두였다.

지난 10 여년간 개발되어 실용화되었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산업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. 현재 기술 선도국에서는 자기네의 국내 산업을 부흥시킴은 물론이고,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新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 현실이다.

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고 적절하게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, 이제는 더욱더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분야로 눈을 돌려,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 정책을 펴야 하겠다. ESCO사업도 기존 에너지시설들의 고효율화를

통한 에너지 절약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국내 시장에 뿌리 내리는 대명제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. 사업분야도 점차 확대일로에 있으며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'국내 최초' 라는 타이틀이 종종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. 더욱 최근에는 청정 개발체제(CDM)에 대해 ESCO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신사업에 목말라 있는 것도 사실이다.

하지만 아직도 2%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일까? 아마 그것은 CDM사업이 국내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, 화석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 달려가 CDM 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? 때맞추어 우리 협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시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류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. 새로운 기회를 갖기는 하나 위험까지 동반한 벤처형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ESCO들에게는 신시장의 개척이라는 좋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.

에너지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비전과 신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. 잘 나갈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교훈을 안겨준 '개미와 벼지'의 우화를 ESCO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.

(사)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
회장 유제인